

50 ~~鮮~~ 金通東 古蹟 (全)
전 變 名 승 교 각 全

金通東 (김^유동) 이 1929년에 저술한
516쪽의 방대한 저작이다
책머리에 魚光迪 (어은적) 과 申錫雨
(신석우)의 후호를 장식 되어 있다
序文 (서문)은 쓴 사람이 두분인데 한
사람은 尹喜求 (윤희구) 이고 다른 한
은 洪命壽 이다 아마 서문의 내용으로

102301

머루이 볼 때 저자와는 친구관계인 것
같다

송몽헌 (김창섭) 화백이 표지 ~~의~~ 장문을
썼다는데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

책머리에 쓴 명승 고적의 사진 88매
가 수록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

내용은 13道(도)의 郡(군)별 큰 명승지
와 고적지 큰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으
나 크고 작은 역사적 유물도 많이 수
록하고 있다. 말하자면 문화사의 편

誌(지지)란 할 수 있다

한자가 너무 많은 것이 태어나 현재까

지 우리 나라에서 이것을 증가할 만는 출

판 특이 보지 못했다

문(部)별은 분량이 가장 많은 문은

경상북도의 경주 군이던 신라의 고조

라 유적이 많은 곳도 있지만 총체적

으로 16쪽에 넘히고 있다

대형 분류 해본면 산(산)이 34개

로 권(卷)이 20개 권(卷) 넘는다

단 한 서원(書院)도 10개 소를 넘는다
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仁山書院(인
 산서원)에 西人(서인)의 거두인 宋時烈(宋
 時烈)은 되시고 있다. 이것도 이상하다
 따라서 오랑인 敬福 仙山 등 인면
 義牛塚이 두 곳 義狗塚이 기재 되어
 있다. 또 한 桃峯寺(도리나)는 ~~신라~~
 阿摩和^寺高(아모화^사고)는 법이 신라에 서
 가도 먼저 창건한 것이란 것만 기록
 되어 있다.

善山(선산)의 金鳥書院(금오서원)에는
 已~~러~~ 3음의 한본인 吾南(각^재) 선생과
 김종자, 張^정형광, 박영 등이 題^제문서 적었
 다

경주대숲의 큰 기록이 많은 곳은 平壤(평
 양)이네 분량으로는 10쪽에 불과하다
 등말대나 보란봉이네 부벽루 등이 기록
 되어 있는가 하면 箕子祠(기자^사) 碑^비명
 이네 箕子^사(箕子墓) 단은 단군사당
 이네 동명왕사당 등 비롯 많은 명승

고려이 잊으리 지극 그 것들이 각종 빈

전 되어 잊는리 모름 안 이다

그런데 蘇烈(수열) (무연사) 가는 중국의

홍지(홍지) (이여송) 등 모니고 잊기 든 하리

백제의 고도인 扶余(부여)에는 平瀟臺(평소대)

이 아라든 앓다 唐(당)나라가 백제를

멸망시킨 기쁨임에 이것에 아라까지

전래 하든 것은 어떤 의미에 서는

대국 등 삼가는 하나의 증좌가 되는 수

임을 전지 모름 안 이다